

## 보 도 자 료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

강홍구 개인전

2009년 3월 13일 (금) - 5월 3일 (일)  
몽인아트센터

- I. 전시개요
- II. 전시소개
- III. 작가소개
- IV. 작품이미지
- V. 몽인아트센터 소개
- VI. 오시는 길
- VII. 안내 및 문의

## I. 전시개요

은평 뉴타운 개발 과정을 디지털 카메라로 포착하고 합성하여 재구성한 사진 19점, 슬라이드 쇼로 구성된 은평 뉴타운 연대기 및 지도 작업

1. 전 시 명: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 강홍구 개인전**
2. 전시기간: **2009년 3월 13일 - 5월 3일**
3. 전시장소: **몽인아트센터 (대표 홍미경),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06**
4. 전시기획: 몽인아트센터
5. 개관시간: 화요일-일요일, 11:00am-6:00pm (매주 월요일 휴관)
6. 리 셉 션: 2009년 3월 13일 (금) 오후 6시
7. 안내/문의: 몽인아트센터 큐레이터 최지예 (T 02-736-1446~8/ F 02-736-1449)

## II. 전시소개

작가 강홍구의 개인전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이 2009년 3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몽인아트센터에서 마련됩니다.

2001년 새로 이사한 동네를 산보하듯 둘러보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진 작업들은 작가 강홍구의 의지와는 별개로 어떤 우연한 마주침들의 기록으로 발전되었고, 마침내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이라는 전시의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작가 자신의 일상을 이루는 주변지역을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가볍게 관망하던 그의 '기록 아닌 기록' 작업은 2002년 발표된 '뉴타운 시범사업 선정 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맥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홍구의 작업은 도시화의 필연적 과정, 혹은 개발열풍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기록에 집중하여 현실의 모순에 대한 작가 자신의 입장을 맥락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느 순간 작가 개인의 일상에 개입해버린 폭력적 풍경을 바라보며 사라져가는 것들, 혹은 이제는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과 향수를 따라가는 형식을 취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는' 속도로 찍힌 풍경을 '걸는' 속도로 바라보며 읽어내는 과정에서 관람객은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현실의 기록' 속에서 자신이 위치하는 지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 \* \* \*

### 또 다른 현실의 기록

스캐너를 이용한 디지털 합성사진을 선보였던 강홍구의 1990년대 작업들은 어떤 의미에서

든 그의 입장을 드러내는데 있어 상당히 노골적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1996-1997)와 <도망자> 시리즈(1996)가 그랬고, <행복한 우리 집> 시리즈(1997)가 그러했으며, <전쟁공포> 시리즈(1997-1998) 역시 이러한 의도를 일말의 오해도 없이 풀어냈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풍경이 등장하기 시작한 그의 화면은 좀 더 현실의 모습에 다가선 때문인지, 합성과 연출로 인해 드러나던 작가의 목소리보다는 사진, 더 정확하게는 현실의 풍경 그 자체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로 관람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한 강홍구의 태도는 그의 초기 작업에 익숙한 관람자에게는 다소 낯선 느낌으로 다가온다. 다시 말해, <그린벨트> 시리즈(1999-2001)와 <오쇠리 풍경> 시리즈(2004) 등 일련의 풍경 시리즈는 작업 방식과 대상의 변화와 더불어 작가의 태도, 작가와 대상의 관계 혹은 거리 두기 등에 있어 변화를 드러내며 다소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려는 듯이 보인다.

은평 뉴타운 지역을 찍은 작업들 역시 이러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2001년 새로 이사한 동네를 산보하듯 둘러보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진 작업들은 작가의 의지와는 별개로 어떤 우연한 마주침들의 기록으로 발전되었고, 마침내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이라는 전시의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작가 자신의 일상을 이루는 주변지역을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가볍게 관망하던 그의 작업은 2002년 발표된 '뉴타운 시범사업 선정 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맥락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강홍구는 도시화의 필연적 과정, 혹은 개발 열풍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기록에 집중하여 현실의 모순에 대한 작가 자신의 입장을 맥락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순간 작가 개인의 일상에 개입해버린 폭력적 풍경을 바라보며 사라져가는 것들, 혹은 이제는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과 향수를 뒤쫓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과 향수는 은평 뉴타운 개발 과정을 디지털 카메라로 포착하고 길게 이어 붙여 재구성한 풍경 사진과 개발의 과정을 400여장의 슬라이드 쇼로 돌아보는 <은평 뉴타운 연대기>,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지나간 자리를 사적(私的)인 기억에 의존해 따라가는 <은평 뉴타운 안내도> 위로 펼쳐진다.

작가의 언급을 염두에 둔다면, 이 작업은 뉴타운과 재개발을 둘러싼 상황을 포착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의 맥락을 비껴가고 있다. 즉, 은평 뉴타운 주변의 맥락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다큐멘터리를 구성하기 보다는 사소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거 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는 화단의 꽃, 그리고 나무와 유기견은 제일 마지막까지 잔존하고 재개발과 더불어 가장 먼저 자리잡는 전신주나 길과 대비되며 작가의 시선을 잡아둔다. 하찮은 것으로 취급 당하며 뿌리 뽑힌 이 모든 대상들은 사라져간 것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존재했음을 증언하는 풍경 위로 어딘지 모르게 주저하는 듯한 작가의 감정을 실어낸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는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의 속도에서 한번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유사하게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오쇠리 풍경> 시리즈의 경우,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다소 급박한 호흡을 자아내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폭력

적으로 일상에 개입해버리는 철거와 재개발의 속성이 숨가쁜 흐름 속에서 증폭되어 화면 위에 현실화된 때문이다. 그러나 은평 뉴타운의 풍경은 이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을 걷는 속도로 잡아낸 다소 긴 호흡의 이 풍경 사진들에서는 결코 객관화될 수 없는 작가의 심리상태가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폐허가 된 풍경 앞에 별거벗은 현실을 두고 가까이 다가서지도, 외면하지도 못하는 작가는 그 압도적인 현실을 그저 '풍경'으로 바라보기로 마음먹는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작업의 대상을 직시하기 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혹은 비껴 서서 걷는질하듯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작업을 결국 과거 속의 현실일 뿐이며, 과거이면서 동시에 실재인 어떤 것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며, '기록 아닌 기록'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홍구가 사진의 표면으로 끄집어낸 기억과 향수의 밑바닥에는 그가 바라봤던 그 대상들 하나하나를 목격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인식한 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결코 펼쳐버릴 수 없는 고민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낙담한 듯, 포기한 듯 느껴지는 그 미묘한 감정의 상태가, 그 어떤 연출보다도 강력하게 상황을 맥락화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작가의 어찌할 수 없음이 현실의 모습을 오히려 더 예리하게 드러낸 까닭이다. 결국, 그의 작업은 재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 즉 무엇이 사라지는지, 무엇이 이러한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지, 결국에 누가 이것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여전히 남겨준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한 듯 보이는 강홍구의 태도와 작업 앞에서도 여전히 힘겨운 현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

(김윤경, 전시 서문)

### III. 작가소개

1956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출생한 강홍구는 목포교육대학(1976), 홍익대학교 서양화과(1988) 및 동대학원(1990)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1992년 갤러리 사각(서울)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위치, 속물, 가짜>(금호미술관, 서울; 갤러리 그림시, 수원, 1999), <한강시민공원>(요스카 뷰잉룸, 도쿄, 2002), <드라마 세트>(대안공간 풀, 서울, 2003), <오쇠리 풍경>(갤러리 숲, 서울, 2004), <풍경과 놀다>(로댕갤러리, 서울, 2006), <어의도 가는 길>(프로젝트 스페이스 칸다다, 도쿄, 일본, 2006)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고, <Emotional Factor+y>(영은미술관, 광주, 경기도, 2008), <Daily Life in Korea: 한국 태국 수교 50주년 기념전>(퀸즈갤러리, 방콕, 태국, 2008),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8), <나침반의 끝>(멕시코 시티, 멕시코; 아바나, 쿠바, 2008), <번역에 저항한다>(토탈미술관, 서울, 2007) 등 단체전과 광주비엔날레(2000, 2002), 부산비엔날레(2002), 미디어시티서울(2002) 등의 국제적 미술행사를 통해 국

내외적으로 꾸준히 작업을 선보여왔다.

2006년에 “올해의 예술가상(시각부문, 문예진흥위원회)”을, 2008년에 “동강 사진예술상(동강 사진 위원회)”을 수상했다.

### Education

- 1976 Mokpo College of Education, Muan, Korea
- 1988 BFA in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 1990 MFA in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 Solo Exhibitions

- 2006 *Play with Landscape*, Rodin Gallery, Seoul  
*Road to Euido*, Project Space Kandada, Tokyo, Japan
- 2004 *Landscape of Oseo-ri*, Gallery Soop, Seoul
- 2003 *Drama Set*,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 2002 *Han Gang Public Park*, Yoska Viewing Room, Tokyo
- 1999 *Location, Snobbery, Fakery*, Kumho Museum of Art, Seoul; Gallery Grimsi, Suwon, Korea
- 1992 *Hong-Goo Kang*, Gallery Sagak, Seoul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8 *Metro*, Dukwon Gallery, Seoul  
*Contemporary Korean Photography 1948-2008*,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B Side*, Do Art Seoul, Seoul  
*The Prize of Dong-gang Photography Art*, Dong-gang Museum of Photography, Yeongwol, Korea  
*The Points of the Compass*, Sala de Arte Publico Siqueiros, Mexico City, Mexico; Fundacion Ludwig de Cuba, Aglutinador Space, Xoho Gallery, Havana, Cuba
- 2007 *Asia Art Now*, SSamzie Space, Seoul; Arario Gallery, Beijing, China  
*Jongchon Public Art Project*, Jongchon, Korea  
*Strange Compass*, Gallery Noon, Seoul  
*Giants in Illusion*, Sejong Art Hall, Seoul
- 2006 *Dong-gang Photo Festival*, Dong-gang Museum of Photography, Yeongwol  
*Seoul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Insa Area, Seoul
- 2005 *The Visual Storytelling*, Gallery Savina, Seoul

- Zoo*, Gallery Skape, Seoul  
*DMZ*, Paju Publishing Culture Center, Paju, Korea  
*Against Translation*, Total Museum, Seoul
- 2004 *Hey-ri Art Valley*, Gong Photo Gallery, Paju  
*Flow, Anyang River Project*, Samduc Paper-mill Site, Anyang, Korea
- 2003 *Walkers on Water*, Seoul Museum of Art, Seoul  
*Park, Comma, People*, KCAF Art Center, Seoul
- 2002 *4th Gwangju Biennale Project 3, Stay of Execution*, 5.18 Liberty Park, Gwangju, Korea  
*2002 Media Art Daejeon, New York-Special Effect*,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2002 Media City Biennale*, Seoul Museum of Art, Seoul  
*11&11, Korea Japan Contemporary Art 2002*, Sungkok Museum of Art, Seoul  
*1st Busan Biennale*,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 2001 *Scatter*, KCAF Art Center, Seoul  
*Representation of Representation*, Sungkok Museum of Art, Seoul  
*The Sprit of May*,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The Family*, Seoul Museum of Art, Seoul
- 2000 *Gwangju Biennale Special Exhibition*, Gwangju Fork Art Museum, Gwangju  
*Texture of Sea*, Sejong Art Hall, Seoul
- 1999 *Korean Pop*, Sungkok Museum of Art, Seoul  
*Movie and Art*, Busan Museum of Art, Busan  
*Artwork with Photography*,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 **Awards**

- 2008 The Prize of Dong-gang Photography Art, Committee of Dong-gang Photography, Yeongwol
- 2006 The Artist of This Year: Visual Art, Arts Council Korea, Seoul

#### **Publications**

- 2006 *Stroll with Digital Camera*, Seoul: Maronie Books
- 2000 *The Beauty of Ordinary Things*, Seoul: Golden Branch
- 1995 *Andy Wahole*, Seoul: Jai Won
- 1994 *The Story of Art, Which Meet out of the Museum*, Seoul: N. C.  
 (Reprinted in 2002)

### Public Collections

Busan Museum of Art, Busan  
Artsonje Center, Seoul  
Busan Democratization Park, Busan  
5.18 Memorial Foundation, Gwangju  
KCAF Art Center, Seoul  
Musée des Beaux-Arts de Tours, Tours, Franc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Hanmi Photography Museum, Seoul  
Gyeonggido Museum of Art, Ansan, Korea

### IV. 작품이미지

※ 고해상도 이미지는 <http://www.webhard.co.kr> (id: miart/ pw: 1449) [내리기전용]→[강홍구 개인전 보도자료] 폴더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판 1)  
강홍구  
살구나무, 2009  
Digital photo & print  
107x125cm



(도판 2)  
강홍구  
소나무, 2009  
Digital photo & print  
107x125cm



(도판 3)  
강홍구  
물놀이, 2009  
Digital photo & print  
107x125cm



(도판 4)  
강홍구  
흰 개, 2009  
Digital photo & print  
90x220cm



(도판 5)  
강홍구  
폭포동, 2009  
Digital photo & print  
90x220cm



(도판 6)  
강홍구  
철거, 2009  
Digital photo & print  
100x200cm



(도판 7)  
강홍구  
내 집 사랑, 2009  
Digital photo & print  
100x200cm



(도판 8)  
강홍구  
논산집, 2009  
Digital photo & print  
100x200cm

## V. 몽인아트센터 소개

2000년 개관 후, 4년간 다양한 전시를 통해 유망한 신진작가들이 국내는 물론 국제미술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해온 갤러리사간은 새로운 전시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2006년 12월에 창작스튜디오인 몽인아트스페이스(중구 신당동 소재, 연면적 500평 규모)를 개원했으며, 2007년 5월 전시공간인 몽인아트센터(종로구 삼청동 소재, 연면적 460평 규모)를 개관했습니다.



(도판 9)

몽인아트센터 전경

건축가: 조병수

대지면적: 545.4㎡

연면적: 1526.68㎡

규모: 지상 5 지하 1

\*전시장 규모: 1층(70평), 2층(60평)

지난 2004년 이후 만 3년간의 공사를 마무리 짓고, 2007년 5월 삼청동의 새로운 전시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보다 의욕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몽인아트센터는 국내외 동시대 “미술”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미술계의 움직임을 대중들에게 균형 있게 소개하고, 실험성과 대중성이 조우하는 이상적인 접점을 제시함으로써 몽인아트센터만의 시각을 견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가는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성실히 수용하고 그들의 문화적 갈증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지역인 삼청동 화랑가에 위치한 몽인아트센터는 지상 5층 지하 1층의 콘크리트 건물 세 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가 조병수의 설계로 2004년 착공된 이 건물은 2007년 4월 완공과 더불어 서울 구시가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외부 벽면과 지상 2층 전면에 적용된 U글라스는 미니멀하고 육중한 건물의 외관에 세련미를 더하고 있으며, 조명 디자이너 고기영이 만들어낸 건물 내외부의 조명은 건물과의 조화를 통해 건축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입면의 좁은 틈새들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자연광과 지상 2층 건물 외부로 이어지는 야외 수정원은 도심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로움을 음미하게 합니다.

## VI. 오시는 길



## VII. 안내 및 문의

몽인아트센터 큐레이터 최지예

T. 02 736 1446~8/ F. 02 736 1449/ E. [monginartcenter@gmail.com](mailto:monginartcenter@gmail.com)/ [www.mongin.org](http://www.mongin.org)